

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

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은 너도밤나무 원생림과 광활한 식림지라는 환경사적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아키타현은 굉장히 귀중한 삼나무 품종인 아키타 삼나무로 유명하며, 벌목회사는 시라카미 산지에서 수 세기 동안 활동해왔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대규모 삼림 재생 프로젝트에 의해 이 지역 숲 대부분이 삼나무로 바뀌었지만,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 대부분은 외진 곳이라는 입지적 이유로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 주변에 있는 너도밤나무의 상당수는 70 여 년 전에 삼나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식림지는 간헐적으로만 유지되었으며, 너도밤나무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벌목을 하지 않은 숲속 더 깊숙한 곳에는 너도밤나무 원생림이 있는데, 이곳에는 시라카미 산지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수령 400 년으로 추정되는 너도밤나무 노목이 있다.

식림과 벌목에 의해 자연의 천이가 방해받지 않은 너도밤나무 원생림에는 세대가 다른 많은 너도밤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다. 마르고 썩은 노목은 영양분이 풍부한 땅을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어린 나무들은 수 세기에 걸쳐 일정한 주기로 자라난다. 이런 너도밤나무 숲에서는 일본의 자연 풍경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영화 '모노노케 히메'를 제작할 때 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을 시각적 참고 자료 중 하나로 활용했다.